



LEGAL UPDATE

ESG센터

Dec. 2023

EU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지침(CSDDD) 실시 합의 도달

2023. 12. 14. EU 의회와 이사회는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지침(The Corporate Sustainability Due Diligence Directive; CSDDD)에 대하여 잠정적 합의에 도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CSDDD는 기업이 인권과 환경 영향을 자신의 관리 시스템에 통합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새로운 규칙으로, EU 입법자들이 비공식적으로 합의한 것입니다. 발표에 따르면 이 규정은 직원 수가 500명 이상이고 전 세계 순매출액이 1억 5,000만 유로(1억 6,325만 달러)인 EU 내 기업에 적용되며, 비EU 기업의 경우 규정 발효 후 3년이 경과한 시점부터 해당 지역에서 발생한 순매출액이 1.5억 유로에 달할 경우 적용됩니다. 발표된 내용에 의하면, 기업은 실사 의무 내지 지침 위반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자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으며, 위반 시 전 세계 순매출의 최대 5%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CSDDD 최종문안은 아직 보류 중으로 이후 동향의 지속적 주시가 필요하겠습니다.

1. 배경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CSDDD, 이른바 EU 공급망 실사법)은 기업이 아동 노동, 노예제, 노동 착취, 오염, 삼림 벌채, 과도한 물 소비 또는 생태계 훼손 등 인권과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완화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지침 시행 시 대상 기업은 접근 방식, 프로세스 및 행동 강령에 대한 설명을 포함하여 정책 및 위험 관리 시스템에 "실사(Due Diligence)"를 통합해야 합니다.

[EU CSDDD 진행 경과]

2020년 EU 집행위원회의 법안 계획 발표 후 2022년 2월 23일, EU 집행위원회는 의회와 이사회에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에 관한 지침 제안서를 제출했습니다. 이후 EU 이사회는 2022년 12월 1일 **일반 접근법**을 채택, 유럽의회는 2023년 6월 1일 **최종입장**을 확정하 바 있습니다.

※ 참고 - 관련 화우 뉴스레터

- EU 공급망 실사 지침 이사회 수정안 발표(2023.01)
<https://www.hwawoo.com/kor/insights/newsletter/11267>
- 공급망 실사 대응을 위한 K-ESG 가이드라인 발표(2022.12)
<https://www.hwawoo.com/kor/insights/newsletter/11213>
- 공급망 실사 법제화 관련 동향(2022. 09)
<https://www.hwawoo.com/kor/insights/newsletter/11012>

2. 발표*의 주요 내용 (* EU 이사회 공식 채널의 발표 사항을 바탕으로 정리함)

실사 지침은 기업의 업스트림 비즈니스 파트너와 일부 유통 또는 재활용과 같은 다운스트림 활동을 포함하는 비즈니스 활동 체인에서 환경과 인권에 미치는 실제 및 잠재적 악영향에 대한 대기업의 의무에 관한 규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지침은 또한 이러한 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 및 민사 책임에 대한 규정을 명시하고 있으며, 기업이 비즈니스 모델과 전략이 기후 변화에 관한 파리 협약과 양립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계획을 채택하도록 요구합니다.

잠정 합의안은 지침의 범위를 정하고, 지침을 준수하지 않는 기업의 책임을 명확히 하며, 다양한 벌칙을 보다 명확하게 정의하고, 기업이 준수해야 할 권리 및 금지 사항 목록을 완성합니다.

1) 지침의 대상범위

직원 수가 500명 이상이고 전 세계 매출액이 1억 5천만 유로 이상인 대기업, 비EU 기업의 경우 지침 발효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시점에 EU에서 발생한 순매출액이 1.5억 유로 이상인 경우에 적용됩니다. 집행위원회는 이 지침의 적용 범위에 속하는 비EU 기업의 목록을 게시해야 합니다.

2) 금융 부문

금융 부문은 지침의 적용 범위에서 일시적으로 제외되지만, 충분한 영향 평가를 바탕으로 향후 이 부문을 포함할 수 있는 검토 조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3) 기후 변화와 민사 책임

잠정 합의안은 대기업이 기후변화 완화를 위한 전환 계획을 채택하고 실행하는 수단의 의무와 관련된 조항을 강화했습니다.

민사 책임과 관련하여 이 합의는 피해자의 사법 접근성을 강화합니다. 이 협정은 노동조합이나 시민사회단체를 포함한 부정적 영향을 받은 당사자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을 5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구인의 증거 공개, 금지 명령 조치 및 소송 비용을 제한합니다.

최후의 수단으로, 일부 비즈니스 파트너의 환경 또는 인권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확인한 기업은 이러한 영향을 예방하거나 종료할 수 없는 경우 해당 비즈니스 관계를 종료해야 합니다.

4) 금전적 제재

지침 위반 시 부과되는 금전적 제재금을 납부하지 않는 기업에 대해 잠정 합의안에는 여러 가지 금지 조치와 함께 기업의 매출액을 고려하여 과징금을 부과(예: 기업 순 매출액의 최소 최대 5%)할 수 있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거래에는 실사 과정의 조치 중 하나로 기업이 영향을 받는 이해관계자와의 대화 및 협의를 포함한 의미 있는 참여를 수행해야 하는 의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5) 정의

잠정 합의안은 남용 또는 침해 시 인권에 악영향을 미치는 구체적인 권리 및 금지 목록인 부속서 I에 명시된 기업의 의무를 명확히 합니다. 이 목록은 모든 회원국이 비준하고 기업이 준수할 수 있는 충분히 명확한 기준을 설정한 국제 문서를 참조합니다. 인권, 특히 취약 계층과 핵심 국제노동기구(ILO) 협약과 관련하여 부속서에 나열된 의무와 수단에 새로운 요소를 추가했으며, 이는 모든 회원국이 비준한 후 위임법에 의해 목록에 추가될 수 있습니다.

잠정 합의안은 또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또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등 다른 유엔 협약에 대한 언급을 부록에 소개하고, 지침에서 다루는 환경 영향의 성격을 유해한 토양 변화, 수질 또는 대기 오염, 유해한 배출물 또는 과도한 물 소비 또는 천연 자원에 대한 기타 영향과 같은 측정 가능한 환경 파괴로 명확히 규정합니다.

3. 국내 기업의 유의사항

EU 공동 입법자 간 정치적 합의에 도달했지만, CSDDD를 구성할 최종 문안은 보류 중입니다. 정치적 합의를 구체화하고 허점이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 기술 회의가 필요합니다. 이후 벨기에가 의장국으로 있는 이사회와 유럽의회가 최종 문안을 승인하는 투표를 실시하여 국가 차원에서 지침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유럽기업정의연합\(ECC\)은 2024년 3월경에 최종 문안이 표결에 부쳐질 것으로 예상 의견을 밝혔습니다.](#)

금회 입법기간 합의를 통해 CSDDD의 발효 및 최종 지침의 발표가 가시화됨에 따라 기업은 최종 문안 내 반영된 준수 의무를 분석·숙지하고, 기업 운영 범위와 공급망 관리 정책, 리스크관리 시스템 전반에 실사의무(Due Diligence)*를 통합할 수 있도록 단계적 대응 로드맵과 추진 방안을 구체화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사의무:** 기업이 실제 및 잠재적 부정적 영향을 식별, 예방, 완화하고 이를 설명할 수 있는 프로세스

화우의 ESG센터는 정확하고 효과적인 ESG Total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여 고객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ESG 고도화에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갈수록 강화되고 복잡해지는 ESG 정책 및 규제환경에서 화우ESG센터는 고객의 신뢰있는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언제든지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Contacts

신승국

미국변호사

T. (+82) 2 6182 8502

E. synn@yoonyang.com

이근우

파트너변호사

T. (+82) 2 6003 7558

E. klee@yoonyang.com

김정남

수석전문위원

T. (+82) 2 6003 8559

E. jnkim@yoonyang.com

조준오

파트너변호사

T. (+82) 2 6003 7080

E. jojo@hwawoo.com

양희

컨설턴트

T. (+82) 2 6003 7674

E. hyang@yoonyang.com

김현지

컨설턴트

T. (+82) 2 6003 7470

E. khji@yoonyang.com